

문화콘텐츠진흥원 · 소프트웨어진흥원 상시 협력체제 구축키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달 21일 목동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교환한 양해각서(MOU)를 구체화한 것으로 양 부처의 관련 분야 주무기관 사이에 맺어진 협약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글_신승철 기자 | 사진_이혜성 기자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을 다짐하며 지난해 10월 1일 체결했던 ‘문화콘텐츠-디지털콘텐츠 업무협력합의서’의 결과물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양 부처에서 콘텐츠 산업육성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주무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 업무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

KOCCA와 KIPA는 지난달 21일 목동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각종 사업의 기능적 연계, 통계조사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실무자간 수차례 안면이 있는 데다 서병문 KOCCA 원장이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행하자고 제안,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모바일 테스트베드 운영 등 유기적 협력모델 기대

이날 양 기관은 ▲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서 협력 ▲모바일 테스트베드의 기능적 연계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한 공동대처 ▲문화콘텐츠컴플렉스와 IT컴플렉스의 기능 연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양 기관은 각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업무협력협의회’를 구성해 매달 정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당장 올해부터 공동노력이 필요한 정책현안을 선정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콘텐츠산업 관련 통계발표에 있어 중복을 피해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지원방안에 대한 협력이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업무 가운데 모바일 테스트베드의 기능연계는 양 기관의 시설을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왼쪽)과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이 지난달 21일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교환하고 있다.

기능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업계 편의를 극대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련 기관과 공동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 상암동에 건설될 ‘문화콘텐츠컴플렉스’와 ‘IT컴플렉스’의 진행상황을 상호 들어본 후 향후 긴밀하게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데도 합의했다.

고현진 KIPA 원장은 “지난해 교수들이 최고의 사자성어로 꼽은 ‘당동벌이(黨同伐異: 옳고 그름의 여하간에 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무리의 사람을 무조건 배격하는 것을 이르는 말)’가 우스갯소리로 유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양 기관은 멍쳐야 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어휘도 맞지 않고 앞으로 이러한 격정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문 KOCCA 원장은 “고 원장과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라면서 “양 기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조금의 낭비도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실무진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고 원장한테 일러바쳐서라도 사업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이끌었다. ●